

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택근대화

- 1922년-1944년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4개 주택설계현상모집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the Modernization of House through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 Four Competitions of House Design published in "Chosun and Architecture"
during 1922-1944 -

서귀숙*

Suh, Kuee-Sook

Abstract

Since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AAC) was founded by the Japanese architects residing in Chosu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ouse related activities of this AAC a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n houses. As research materials, Chosun and Architecture was used and the main concern of this research was based on competition of house design which were published in the magazines. There were four competitions which reflected the activity background of AAC with the social circumstances at that time and the research was done especially on the definite situation of the competition of house design. Also, the prize winning works were analyzed accordingly.

Keywords :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Modernization of House, Competitin of House Design
주 요 어 : 조선건축회, 주택근대화, 주택설계현상모집

I. 서 론

1. 연구 목적

조선건축회는 1922년 4월 30일 창립되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건축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인에 의한 단체 또는 협회결성이 불가능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특수상황에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 건축가와 관련자를 주축으로 결성된 유일한 건축단체인 조선건축회는 한반도에서의 건축사업을 설립 취지와 회칙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건축회의 창립 목적과 역할은 식민 이후 조선 각 도시가 근대적인 문명도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래의

시설개선과 문화적 생활개선, 주택건축의 보급을 주창하는 것이다.

식민 한반도에서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근대적 영향을 받게 되어 지식인¹⁾들을 중심으로 소위 한국의 근대주의 사상이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출발한 근대 자본주의 사상은 당시 조선의 전통적 관습과 생활을 근대사상에 미치지 못하는 구사상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문화생활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서구문명과 동일함을 표출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정희원, 숭실대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조교수, Ph.D
본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03-D00136)

1) 김명선(2002)의 연구논문(1920년대 초 開闢誌에 등장하는 주택개량론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10호, p115-122)에 의하면 식민통치가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한 근대적 사상과 생활이 계몽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등의 유학으로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접한 조선의 신지식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재래의 생활과 재래주택이 변화를 모색하려는 주택근대화는 하나의 사회현상²⁾으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건축회가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건축회 창립 준비위원이면서 이사인 中村誠는 「조선건축계의 두가지 시급한 업무(朝鮮建築界の二大急務, 『朝鮮と建築』 1922. 6)」라는 논설에서 도시생활 개선과 주택개선사업을 강조하고, 당시 조선에서의 주택개선을 조선건축회가 당면하는 중요과제로 지적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건축회는 주택건축을 모집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당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관련 설계현상모집을 실시하였다. 설계현상모집이란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주최하는 것으로 건축설계자들의 생각을 모으고 어떤 안이 문제에 대해 가장 좋은 해결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주택설계현상모집을 통해서 당시 사회와의 접점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조선에서의 근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과 그 가능성이 내재된 주택을 모집하고 소개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의 주택 양상과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끄는 조선건축회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택관련 설계현상모집은 당시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주택근대화와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학계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자율적이기보다는 식민에 의한 타율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³⁾ 한국주거

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건축회가 주관하였던 주택관련활동과 당시 조선에서의 주택변화를 어떤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세밀한 이해를 위해서는 주택관련 설계현상모집에 대한 연구가 기초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건축회에 의한 주택관련 사업 중에서 설계현상모집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모집의 배경을 알아보고, 현상모집 당선안인 주택평면에서 근대화의 내용과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범위

조선건축회는 창립기념사업으로 『朝鮮と建築(조선과건축, 1922. 6)』을 발간하게 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건축회가 활동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유일한 기관지이며, 조선건축회의 주택관련활동과 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택설계현상모집과 당선도안 발표는 당시 『朝鮮と建築』에만 게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22년 6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발간된 총 262권 중에서 자료입수가 불가능하였던 36권을 제외한 226권을 연구자료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주택관련 설계현상모집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현상모집의 많은 당선도안 중에서 1등-3등까지의 우수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소(小)주택설계도안 모집에는 1등이 당선되지 못한 관계로 가작1석 작품까지를 우수작으로 포함하였다. 각 당선도안에서 평면형식, 기거양식, 구조, 방한방법에 대한 내용을 고찰한다.

II. 주택설계현상모집 배경 및 요강

4개 주택설계 현상모집요강의 발표내용과 각각의 모집규정은 <표 2>와 같다.

조선건축회 창립기념사업으로 개최한 「개선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은 "본 조선건축회는 매우 시급한 주택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번이 기관지 『朝鮮と建築』 창간호 발행을 기하여 조선에 있어서 중류 가정으로 문화생활에 적합한 개선주택설계도안을 모집한다"⁴⁾라는 공모취지를 발표한다. 공모내용에서

2) 안성호(2001)의 연구논문(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12권 4호, p185-194)에 의하면, 1920·30년대는 생활개선과 주택개량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한 주택개량에 관한 글들이 잡지와 한글신문에 게재되는 등 주택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선희(1999)의 연구논문(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의식, 한국주거학회지, 10권 4호, p53-62)에서는 문학가가 제시하는 주거생활개선을 밝히고 있는 등, 당시 조선에서의 근대적 생활과 주택의 근대화 경향을 규명하고 있다.

3)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부터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식민지배 이후에 많은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사상이 전달되고 있다. 한국인이 직접 서구의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보다는 앞쪽에서 설명되었듯이 일본 등의 유학으로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간접적으로 접한 조선의 신지식인들에 의한 근대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식민으로 인한 근대화를 본 연구에서는 식민에 의한 타율적인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표 1. 『朝鮮と建築』에 게재되는 주택설계현상모집

년도	설계현상모집	일반관련사항
1922	개선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	조선건축회 창립
-	-	생활개선, 주택개량, 문화주택연구
-	-	-
-	-	주택개선 전국확산운동
-	-	-
-	-	조선박람회 개최
1930	도시계획법 발표 / 건축경제	조선가옥개선연구
-	-	-
-	-	조선시가지 계획령 발표
-	-	-
-	内地風 및 朝鮮風주택건축 설계도안현상모집	-
-	-	-
-	소(小)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	건축수난시대 / 전시(戰時)체제
1940	-	비상사국
-	-	건축의 신체제
-	국민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	-
-	-	전시(戰時)건축규격제정
-	-	-

「중류가정」「문화생활」「개선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⁵⁾에 의하면 「중류가정」은 도시중간층으로 신문화의 영향을 받아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도시에 기거하는 생활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화생활」과 「개선주택」도 초기 조선건축회 설립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당시 동시기에 개최되었던 일본의 「평화기념동경박람회」⁶⁾에 출품되었던 주택개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생활」이란, 새로운 사상, 즉 자유, 개성 등을 요구하는 사상에 입각하여 주거생활을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인 편리함을 기본으로 자유롭고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⁷⁾.

일제강점기 조선건축회는 이러한 문화생활을 위한 「개선주택」을 동일하게 설립 취지에서 밝혔으며, 또

한 동시에 「개선주택 설계도안현상모집」에 적용하여 진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로 「30평 이하」의 연면적을 제시하고, 종래의 대가족제도에서 탈피하는 「5인」의 소규모 가족구성, 그리고 가족중심의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본위」의 공간구성과, 위생을 고려한 방한설비는 「외벽 방한처리」로 제시하며, 건축비용은 「5000圓 이하」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선주택 설계도안」요강내용은 주택보급보다는 재래의 주거생활양식에서 탈피하는 생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생활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시가 반영된 새로운 주택모델을 요구하고 모집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현상모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주거생활의 의식개선과 주택개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근대적 출발점이 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하게 되는 최초의 주택설계 현상모집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조선건축회는 창립초기부터 조선의 주택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⁸⁾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회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 게재되는 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31년 10월 조선식 주

6) 新建築大系編輯委員會, 新建築學大系 7住居論, 彰國社, 1993, p.33-34. 內田請藏, 앞의 책, p.36, p.72-98

7) 「평화기념동경박람회(平和記念東京博覽會)」는, 일본이 근대적 자본주의 국가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서구의 사상을 흡수하고 그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표방하려는 사회 변화속에서, 정부 주최로 1922년 3월 10일-7월 31일까지 동경 上野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일본 건축학회는 총 14채의 실물주택을 전시하였으며, 전시된 회장을 문화촌(文化村)으로 명칭하였다. 개선의 초점은 재래의 일본주거생활에서 탈피하고, 그것은 곧 외국서구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주택개선 운동은 사회 전반의 유행과 같이 전개 되었다.

7) 新建築大系編輯委員會, 앞의 책, p.34. 內田請藏, 앞의 책, p.110-121

8) 小野二郎, 朝鮮に於ける住宅建築の改造, 『朝鮮と建築』 1집 1호(1922.6), p.27-31. 小河弘道, 朝鮮に於ける住宅と防塞問題 『朝鮮と建築』 1집 4호(1922.9), p.36-40. 藤本源市, 溫突の改造に就て, 『朝鮮と建築』 2집 4호(1923.6), p.40-42. 福井 策, 住宅建築改善私見 『朝鮮と建築』 2집 7호(1923.10), p.24-29. 掛場定吉, 溫突の改造に就て 『朝鮮と建築』 5집 11호(1926.11), p.22-28. 第四回總會記事録, 『朝鮮と建築』 6집 4호(1927.4), p.36-37. 森悟一, 朝鮮家屋の改善に就きて, 『朝鮮と建築』 10집 5호(1931.5), p.34-39

4) 改善住宅設計圖案懸賞募集, 『朝鮮と建築』 1집 1호(1922.6), p.58

5) 주4의 안성호(2001) 논문, p.186-187
서귀숙(2000), 1922년 조선건축회에 의한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지 11권 3호, p.31-32, 김명선, 심우갑(2001), 1922년 조선건축회 주최 개선주택현상모집에서 일본인 주택의 방한문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2호, p.89, 內田請藏(1992), 日本の近代住宅, 鹿島出版會, p.72.

표 2. 주택설계 현상모집과 모집요강 내용

	현상모집명				
	개선주택설계도안	內地風 및 朝鮮風주택건축설계도안		소(小)주택설계도안	국민주택설계도안
		內地風(갑)	朝鮮風(을)		
『朝鮮と建築』	1922.6 (1집 1호)	1937.4 (16집 4호)	1937.4 (16집 4호)	1939.6 (18집 6호)	1942.6 (21집 6호)
규모	연평수 30명 이하 (단, 지하실 포함 안함)	연평수 50명 내외	연평수 30명 내	연평수 20명 내	연면적 65 m ²
부지	—	· 경성부근, 남쪽의 경사가 있는 고지대. · 동서 13間, 남북 12間, 서쪽만 2間 1/2의 도로에 면하고 이외 3면은 이웃주택부지와 접한다.	· 경성부근의 평지 · 부지는 양 90평, 남쪽은 2間 1/2의 도로에 면하고 이외 3면은 이웃주택부지와 접한다.	· 동쪽 또는 서쪽이 3間, 남북 8間的의 크기로 한다.	· 경성으로 한다. · 면적, 형상, 방위, 도로 및 접지와의 관계는 규정이 없으며, 각자 상정한 근거를 설계설명서에 명기한다.
배치	가족본위	—	—	—	—
건축양식	· 자유 · 조선중부의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특히, 외벽은 방한적으로 한다.	· 단층 또는 2층 건물로 일부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	· 조선식 단층 건물로 재래의 조선식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개량을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 자유 · 단층으로 한다.	· 구조는 임의로 하며, 그 내역은 설계 설명서에 명기한다.
설비	—	· 난방방법은 자유.	—	—	· 가스, 전열은 현재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건축비	5000圓 이하	약 10,000圓 내외 (문담,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설비 포함)	약 4,000圓 내외 (동일)	4,000圓	—
가족수	5인 정도	7-8명 (가정부 포함)	6-7명	4-5명	—
채출도면	· 각종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단, 배치도, 도면설명서의 첨부는 임의로 한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설계개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설계개요 (도면여백에 기입)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설명
채출마감	大正11년(1922) 8월 30일	昭和12년(1937) 8월 31일	昭和14년(1939) 7월 20일	昭和17년(1942) 8월 25일	
응모자격	조선건축회원	—	본 건축회 회원	조선건축회원	
심사위원수	현상도안 심사위원회 (총 10명)	본 건축회 15주년 기념사업 현상모집위원 (총 14명)	회장, 부회장, 제3부 위원회 회원 (총 14명)	고문 1명, 주택영단이사장, 경성일보 사장, 위원 7명 (총 10명)	
상금	1등(1작):100圓, 2등(2작):50圓, 3등(4작):25圓	1등(갑,을 각 1명): 각 100圓, 2등(갑,을 공동 4명): 각 50圓, 3등(갑,을 공동으로 약간명): 25圓	1등(1명): 50圓, 2등(1명): 30圓, 당선의 가작(약간명)	1석(2명):150圓,100圓), 2석(2명):120圓, 100圓, 3석(2명):100圓, 가작(5명):50圓	
기타사항	(내용생략)	(내용생략)	· 시가지 계획령에 준함. (기타 내용 생략)	(내용생략)	

택건축 개선좌담회⁹⁾로 조선식 주택의 개선방침을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근대화된 생활을 위해서는 조선식 주택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만이 모아진다. 이에 1937년 조선건축회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로 「內地風¹⁰⁾ 및 朝鮮風¹¹⁾ 주택건축설계도안현상모집」을 개최하고, 內地風과 朝鮮風

으로 분리하여 모집을 공고하였다. <표 2>에서 朝鮮風주택은 규모, 부지, 건축양식, 건축비, 가족구성에서 內地風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은 규정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朝鮮風주택개선의 충족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평수 30명, 1주택 6-7명의 가족, 건축비 4000圓이라는 朝鮮風の 개선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식 단층 건물로 재래의 조선식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개량을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의 건축양식에서는, 전통의 조선식 주택구성이 기본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개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형식으로, 말하자면 「朝鮮風+새로운 개선」이라는 두 가지 양식을 조화시

9) 朝鮮式住宅建築改善座談會, 『朝鮮と建築』 10집 10호 (1931.10), p.7-22.

10) 『朝鮮と建築』에서 표현되는 內地風은 재래의 일본주거를 말하는 용어로 해석한다.

11) 朝鮮風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표현으로 당시 조선 재래의 주거로, 한국전통주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식으로 해석한다.

키는 주택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정에서 개선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위생 관련 시설을 들 수 있으며, 재래의 조선주택에는 없는 서구식 생활에서 보여지는 주택설비의 개선이라 하겠다. 1937년 이전까지 조선건축회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아래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위주로 하는 일본식 주택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內地風 및 朝鮮風주택건축설계도안현상모집」은 조선건축회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조선과 일본의 주택을 분리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식 주택을 독립된 주거로 인정하여 조선식에 적합한 근대적 개선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고, 더욱이 현상모집 형식으로 조선식 주택개선을 공모하게 되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1930년대 초기의 건축경제 시작과 함께 1937-38년 본격적인 전시(戰時)체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증산을 위한 경제체제로 변화한다. 즉, 정세와 경제의 곤란으로 건축관련 제반사항에 수난을 맞이하게 되며, 또한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닌 인구증가는 주택문제와 관련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¹²⁾이라는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중요한 관심사인 주택문제로 돌입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현상 아래 조선건축회는 1936년 6월 "본 현상은 주택문제 해결안으로서 경성부 내의 구릉지(丘陵地)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¹³⁾라는 실제 건설실시를 위한 목적을 갖고 「소(小)주택설계안」을 모집한다. 모집규정에서 가족수는 4-5명, 연건평 20평의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22년 실시한 개선주택현상모집 5인가족의 30평과 비교하면 약 10평이 줄어든 작은 규모이며, 1937년 內地風 및 朝鮮風 주택현상모집의 50평, 30평과도 비교하면 그 규모면에서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생활에서의 최소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소(小)주택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축양식에서는 단층으로 하는 제한만이 있을 뿐, 그 밖의 내용에서는 제시가 없다. 이는 선행된 현상모집에서 보여준 근대적 생활개선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주택요구사항과는 다르게 당시의 주택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실성을 적용하려는 모집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시(戰時)체제 아래 조선건축회는 1941년에 「건축의 신체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신체제는 전시(戰時)체제와 비상사국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 통일된 규제와 제한을 만들고 전국에 적용 및 통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고 국가 총력에 도움을 주는 체제로 해석하고 있다¹⁴⁾. 당시 국가정책에 수반한 현상으로 주택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주거면적을 결정하는 식의 「표준」에 의한 주택만들기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의 「국민주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황에서 조선건축회는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도시에 세우는 국민주택설계도안」을 모집하게 된다. <표 2>의 모집요강을 보면, 65㎡ 이내의 주택규모로 이는 약 20평 이내의 소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 1939년의 소(小)주택설계현상과 규모면에서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어 주택부족의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소(小)주택의 설계를 근거로 하는 「국민주택」의 탄생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모집규정에서 전시(戰時)로 인한 물자 및 자원부족으로 주택에서의 가스, 전열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바로 신체제에 따른 통일된 규제를 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수와 건축비의 규정내용이 없는 것은 국민주택으로서의 표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설계도안」은 일정한 주택표준을 만들고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12)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평면계획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p.95-106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구의 경성부 인구 증가는 1922년 3.3%, 1930년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은 신축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여, 1925년 4.45%의 주택부족률이 1931년에는 10.62%, 1935년에는 22.46%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사 연구』 일지사, p.246에서, 경성부의 국적별 주택사정 통계조사는 1933년 조선인 15.15%, 일본인 2.74%, 기타 외국인 4.1%의 주택부족률을 보이며, 이 중에서도 조선인의 주택부족은 가장 높아 주택난과 함께 시급한 주택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3) 조선건축회, 會告, 小住宅設計案懸賞募集 『朝鮮と建築』 18집 6호(1939.6), 페이지표기 없음.

14) 座談會, 建築の新體制を語る, 『朝鮮と建築』 20집 1호(1941.1), p.15-26, 1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건축계획, 재료, 구조, 시공, 건축관리로 나누어 좌담하는 형식을 하고 있다.

일반 현상모집으로 볼 수 있겠다.

III. 현상모집설계 당선도안

1. 개선주택설계도안 현상

「개선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은, 당선도안¹⁵⁾을 중심으로 평면형식과 기거양식, 구조, 방한 등의 방법을 모집취지 및 규정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1등 도안은 설명서를 게재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을 통한 평면형식은 현관을 지나 가족의 식사장소를 겸하는 거실겸식당(居間兼食堂 표기)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곳을 통해 각 실로 연결되는 전형적인 거실 중심형¹⁶⁾ 주택으로 평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가족중심의 생활장소를 기본으로 한 「가족분위」의 공간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도면에서 기거양식은 거실겸식당과 서재겸응접실(書齋兼應接室 표기), 아동실(兒童室 표기)이 의자의 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실은 다다미 또는 花筵¹⁷⁾ 재료를 사용한 일본식 좌식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벽돌조적조의 단층으로 한국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방한 목적을 보이고 있다.

2등 도안은 설명서를 함께 게재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복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실들이 배치되고 북쪽으로는 부엌, 욕실, 변소, 가정부실(女中室 표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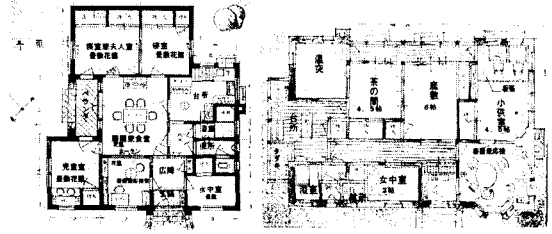


그림 1. 1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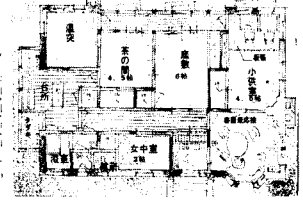


그림 2. 2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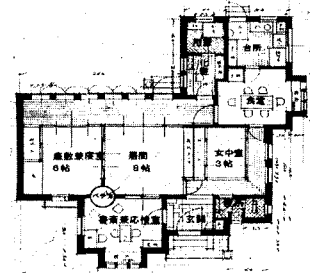


그림 3. 3등 1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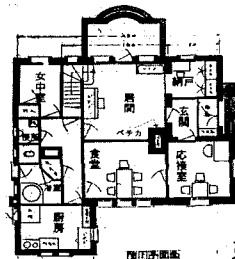


그림 4. 3등 2석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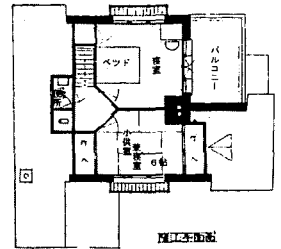


그림 5. 3등 2석 2층 평면도

15) 朝鮮建築會懸賞, 改善住宅構模圖案, 「朝鮮と建築」 1집 5호(1922.11), 페이지표기 없음.

개선주택 설계도안현상모집 당선은 1등 1작, 2등 1작, 3등 6작, 각각 13작 등 총 21작품으로 선정되어 당초 공모내용과는 달리 가작을 첨가시키고 있다. 당선자는 모두 일본인이며, 기관지에는 당선작품 중에서 1등, 2등, 3등과 가작 1작품 등 9작품의 당선안을 게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작으로 3등 2석까지의 4개작품을 소개하였다. 당선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외의 당선도면에 관해서는 주6의 서귀숙(2000)는 문 p.33을 참조한다.

16) 居間은 일본어로 “이마”라고 불리며, 건축용어사전(建築用語辭典(第二版), 建築用語辭典編集委員會, 技報堂出版社 1995)에 의하면 居室(거실)로도 명칭하고 있다. 주택에서 가족의 단란·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江戸시대 이전에는 주인 또는 주부의 방을 지칭하였으며, 江戸이후 일상생활에 사용된 방으로 기능적으로는 식사, 취침 등의 생활행위가 공용되기도 하였다. 大正期에 전개된 주택개량운동으로 일본 재래주거가 손님접대 중심이었음을 비판하고 실제 생활하는 가족장소를 중요시하는 가족생활중심의 주택이 제안되면서 居間は 독립되어 서구의 거실(living room)개념을 갖는 거실 중심형의 주택이 제안되었다.

17) 花筵은 꽃무늬 또는 색이 있는 돗자리로 바닥재료를 말한다.

위치하는 중복도형¹⁸⁾ 주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시키(座敷), 차노마(茶の間)¹⁹⁾ 또한 전형적인 일본재래의 주거공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거양식에서 현관 옆의 서재겸응접실은 의자인 입식으로 하고, 아동실(小供室 표기)은 일부를 입식과 좌식으로 혼용

18) 중복도형(中廊下型)평면은 明治시대 말경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종류의 도시주택으로 일본주거사에 등장된 대표적인 유형이다. 부엌, 욕실, 변소 등을 座敷, 茶の間등의 가족이 생활하는 실들로부터 분리하고, 그 사이를 복도로 설계한 평면을 말한다.

19) 일본 전통주거에서 座敷(자시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茶の間(차노마)는 가족의 식사 및 모임, 취침이 공용하는 방을 말한다.

20) 朝鮮建築會懸賞募集, 改善住宅應募圖案, 「朝鮮と建築」 1집 5호 (1922.11), 페이지 표기 없음.

하고 있으며, 그 외 실은 좌식으로 하고 있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조는 1등안과 동일한 벽돌조적조이며, 특히 방한 목적의 온돌방 설치는 당선도안 중에서 유일하게 재래조선식을 적용하고 있다.

3등1석 도안의 평면형식은 거실이 자시키겸침실(座敷兼寢室 표기)과 서재겸응접실로 연결되고 그 밖의 실과는 복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형 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실이 각 실과의 기능적 연결에서 중심적 위치에 배치되는 평면을 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서재겸응접실과 식당이 입식이며, 거실과 자시키겸침실, 가정부실은 다다미를 사용한 좌식이다. 구조는 벽돌 조적조 형식이고, 방한을 위해서 "난방은 페치카(ペチカ)를 사용"²⁰⁾한다고 설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난방은 거실중심의 3개실이 공동으로 사용됨을 도면에서 읽을 수 있다.

3등2석 도안의 평면형식은,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 응접실, 욕실, 변소, 부엌이 배치되는 1층의 거실중심형과 침실과 아동실이 별도로 배치되는 2층 평면을 제시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아동실과 가정부실을 제외한 각 실들이 입식이다. 구조에 관해서 설계자는 "기초 콘크리트와 축벽 벽돌 조적조"²¹⁾로 설명하고 있다. 방한처리는 3등1석과 동일한 페치카를 사용하여, 1층에서는 거실과 식당, 응접실만이, 2층은 침실, 아동실이 난방되고 있음을 도면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개선주택 당선도안을 통해서 공통적인 근대적 요인과 제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주택개선에 대한 의식이 탄생되고 개선방향을 가족중심의 생활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거실중심형 공간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구식 주거의 거실 탄생과 생활양식의 전개로 볼 수 있다.

2) 기거양식에서는 대부분이 좌식과 입식을 병행하고 있다. 좌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입식은 의자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식을 적용하고 있다. 거실과 식당, 서재겸응접실, 침실 등에 서구식의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생활에 본격적인 서구문화를 도입하고 이를 재래주거로부터의 생활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3) 한국 겨울 기후에 적합한 구조방법은 방한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선의 온돌방식을 채용하거나, 또는 페치카라는 서구식의 난방설비를 도입하는 대응은 일본인 건축가들에 의한 조선에서의 주택개선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朝鮮風(조선식)주택설계도안 현상

「內地風및朝鮮風주택건축설계도안현상모집」의 당선작은 1937년 11월²²⁾에 게재된다. 조선건축회는 현상모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안심사를 진행하고, 1937년 9월 심사회의²³⁾에서 조선식 심사에 조선인의 심사의견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심사회 결정은 조선주거의 개선을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의 시각에서 개선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식 주택개선이라는 최초의 현상모집에서 의의를 갖는 당선도안은 3등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인에 의한 설계이며, 선행된 현상모집²⁴⁾이 일본인의 응모가 대부분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최초의 조선인²⁵⁾ 당선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조선건축회는 당선작품을 건축전람회²⁶⁾에 전시하여 사회에 조선식 개

22) 懸賞募集當選住宅圖案, 『朝鮮と建築』16집 11호(1937.11), 페이지 표기 없음. 당선작은 조선식 3작품과 일본식 6작품으로 이들은 모두 전람회에 전시되었으며, 『朝鮮と建築』에는 조선식 3작품과 일본식 4작품만이 설계도면과 함께 게재된다.

23) 會報, 『朝鮮と建築』16집 10호(1937.10). 1938년 9월 7일자 住宅圖案審査續行과 13일자 住宅懸賞圖案審査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住宅圖案審査續行: 「前日に 계속해서 오후 4:30부터 현상주택도안심사에 들어가 엄선결과 일본식 주택에 대해서는 別項會告대로 입선을 결정하고 조선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선인 권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오후 6시에 해산함.」 住宅懸賞圖案審査: 「前項 조선인 권위자 의견을 듣기로 한 조선식 주택현상도안심사는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사무소에서 철도국 위탁 本會평의원인 金倫求씨에게 간청하여 의견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여 卷頭所載와 같이 결정하였다.」

24) 주16 참조

25) 齋藤忠人, 內地風並に朝鮮風住宅建築設計圖案懸賞募集の審査を終へて 『朝鮮と建築』16집 11호(1937.11), p.86 朝鮮風住宅 당선자는, 1등: 吳英燮(朴吉龍建築事務所), 2등: 金舜河(朝鮮總督府會計課), 3등: 矢野斐(朝鮮總督府會計課), 가작: 李漢哲(직장표기없음, 江原道春川北山面 淸平寺)로, 3등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한국인이다.

26) 萩原孝一, 展覽會に就ての感想, 記念展覽會出品目錄, 『朝鮮と建築』16집 11호(1937.11), p.17. 당선작품은 1937년 10월 1일-3일까지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소개된다.

21) 朝鮮建築會懸賞募集, 改善住宅應募圖案, 앞의글, 페이지 표기 없음.

선주택으로 소개하고 있다.

1등 도안의 평면형식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실을 배치하는 전통적인 조선식 주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관 옆 남쪽으로 사랑방이 배치되고, 뒷마루는 창문이 부가되어 복도로 전환되는 일본식 복도형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엌은 안방과 연결되나 위치가 북쪽으로 변경되고, 욕실의 탄생과 변소가 동일한 실내에 배치됨은 재래조선식 주거에 존재하지 않는 실 구성을 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대청의 마루와 각 실의 온돌로 좌식을 택하고 있다. 구조는 조선식 목조의 단층구조이다.

2등 도안의 평면형식은, 가족의 응접실겸식당(應接室兼食堂 표기)이 대청에서 이루어지고, 1등안과 동일하게 대청을 중심으로 실들이 배치되는 전통적인 조선식 주거를 기본으로 한다. 부엌, 변소, 욕실의 배

표 3. 조선식주택설계당선도안 기거양식 및 평면특징

분류	규모	기거양식	평면 특징
조선식	1등 단층	조선식	· 가족중심 · 재래주거의 개선=신조선식 주거 · 재래 조선식주거+일본식 복도형
	2등 단층	조선식 +서구식	· 가족중심 · 재래조선식주거+서구식공간침가+일본식복도형 · 대청의 서구화
	3등 단층	조선식	· 가족중심 · 재래조선식주거+서구식공간침가+일본식복도형

치 또한 1등안의 구성과 동일하다. 현관 옆 사랑방을 주인실(主人室)로 표기하고, 또 다른 손님 접대기능을 갖는 응접실겸선룸(應接室兼サルルーム 표기)은 재래의 조선식 주거에는 없는 서구식 주거공간을 도입하였다. 대청 앞의 테라스(テラス²⁷⁾ 표기)도 마찬가지로 서구식 주거공간으로 볼 수 있다. 기거양식은 대청의 식탁과 응접실겸선룸의 의자인 입식을 제외하고는 온돌의 좌식이다. 구조면에서는 1등안과 동일하다.

3등 도안의 평면형식에서는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이 배치되고, 일본주거의 복도형 구성을 한다. 특히 주인실(主人室 표기)과 부인실(夫人室 표기)을 인접시키는 실 배치는 사용상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으나, 장지문 하나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재래 조선식 주거의 사랑방과 안방과의 배치방법이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방과 직접 연결되었던 부엌(炊事場 표기)은 안방과 분리되고, 욕실, 변소와 함께 위생관련 공간들이 함께 모여지는 위치로 변경된다. 현관 옆 서재겸응접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서구식 주거공간을 도입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모든 실이 온돌인 좌식이며, 구조에서는 1, 2등안과 동일한 조선식 목조의 단층 구조이다.

조선식 당선도안을 통해서 조선식 주택의 근대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평면에서 대청은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 대청이 서구주거의 거실개념을 갖는 실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재래의 조선식 평면구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중심 생활이라는 생활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2) 주거개선은 재래의 조선식 평면에서 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서구식의 주거공간을 부분적으로 도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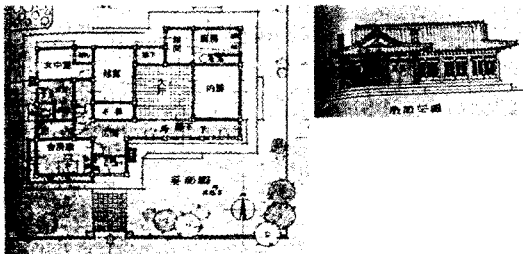


그림 6. 1등 평면도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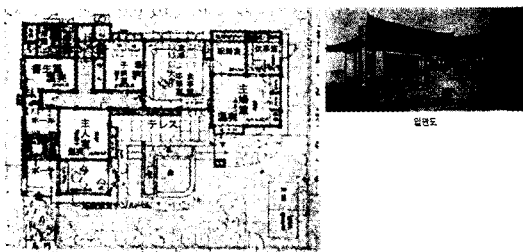


그림 7. 2등 평면도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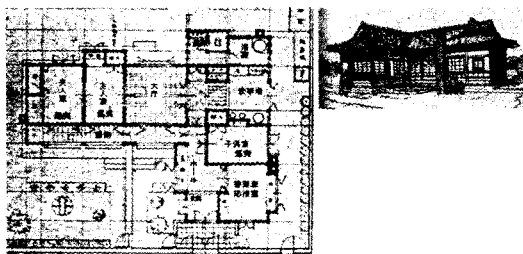


그림 8. 3등 평면도 · 투시도

27) 테라스의 테라스표기는 일본어 히라가나 古語로 현대 표준어인 테라스를 말한다.

는 형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복도형 구성과 현관의 탄생은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래 조선식과 서구식, 일본식이 혼용되는 개선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기거양식에서는 재래의 조선식 좌식과 서구식의 가구를 배치하는 입식이 혼합되어 [조선식+서구식]을 보인다.

4) 주거생활의 개선은, 전통적인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를 동일한 실내에 안방과 사랑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의 사용에 있어서는 안방(主婦室)과 사랑방(主人室)으로 나누어지는 재래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함을 제시하고 있다. 욕실과 변소의 주거 내 계획은 위생적 측면의 근대적 생활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서재겸용접실과 대청의 식탁 등은 서구 문화생활을 제시하는 것이다.

5) 구조방법은 재래의 조선식 목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가장 조선주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와 접하는 툇마루의 복도화와 창문 설치는 조선식 주거의 외관변형을 말한다. 온돌 또한 조선의 기후와 조선인의 생활습관에 적합한 방한대책으로 유지됨을 제시한다.

3. 소(小)주택설계도안 현상

소(小)주택설계도안은 총 16개 옴모도안이 제출되었으며, 1등안은 선정되지 못하고 두 작품을 2등으로 선정하였다²⁸⁾. 당선도안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등1석 도안은 설계개요에서 21평으로 설명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거실중심이며, 전형적인 일본의 중복도형을 취하고 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3개실(거실, 아동실, 차노마)이 가장 일조량이 좋은 남쪽으로 배치되고, 북쪽으로 부엌, 욕실, 화장실, 변소, 수납실(納戸 표기)이 배치된다. 재래 일본주거의 엔가와(縁側)²⁹⁾는 기능적으로 변화는 없으나, 썬룸(サンルーム 표기)이란 서구식 공간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기거양식은 각실 모두 다다미형식의 일본 좌식이다.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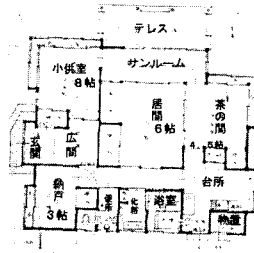


그림 9. 2등1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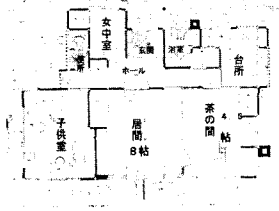


그림 10. 2등2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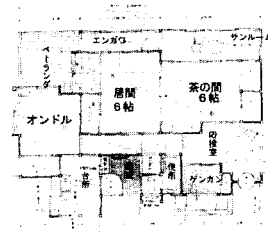


그림 11. 가작1석 평면도

명서에 의하면 구조는 일본식 목조이며, 다다미 실들의 방한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

2등2석 도안은 설계개요에서 22.75평으로 설명한다. 평면형식은 1석안과 동일한 일본의 중복도형이며, 다만 복도를 홀(ホール 표기)이라는 서구식 공간 명칭으로 표시하였다. 홀의 남쪽으로 거실과 차노마, 아동실이 배치되고 가정부실, 부엌, 변소, 욕실은 모두 북쪽으로 배치되고 있다. 기거양식은 아동실을 서구식 입식으로, 그 밖의 실들은 모두 다다미의 좌식으로 하여, 입식과 좌식을 혼용하였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조와 방한대책은 1석 도안과 동일하다.

가작1석 도안의 평면형식은 일본의 중복도형으로 3개실(거실, 차노마, 온돌방: オンドル)을 남쪽으로 배치하였다. 현관과 연결시킨 서구식 공간의 응접실을 구성하고, 설계개요에 의하면 23.65평의 평면규모로 설명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일본의 다다미인 좌식과 조선식 온돌의 좌식이며, 응접실만이 마루바닥의 의자인 입식이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조에서는 2등 도안들과 동일하며, 방한대책으로 온돌방을 설치하고 있다.

이상의 소(小)주택 당선도안의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당선도안 모두는 일본의 중복도형 평면구성이다. 복도를 중심으로 실들은 남과 북으로 분리되는 형식을 취하고, 주요실 들은 방향성이 좋은 남쪽에

28) 野村考文, 小住宅審査會報告, 『朝鮮と建築』 18집 9호 (1939.9), p.34-35. 2등1석: 川浪光次(平安北道會計課營繕係), 2등2석: 野口公德(京成多田工務設計部), 가작1석: 松田松次郎(직장 표기 없음)로, 모두 일본인이 당선자임을 알 수 있다. 29) 縁側(엔가와)은 방 앞에 설치되는 마루 바닥으로 한국주거에서의 툇마루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배치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2) 소규모 주택을 3개의 주요실로 구성하였다. 1개의 거실과 2개의 실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실 구성을 보인다. 이로부터 <표 2>의 모집요강에 명시된 4-5명의 가족구성에 적합한 3개실을 소주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3) 거실은 가족공동의 기능만이 아닌 침실이 함께 하는 복합기능의 거실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선행된 현상모집에서는, 거실과 침실을 별도구성으로 하여 거실을 가족중심의 생활장소로 강조하고 있으나, 소주택에서는 침실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규모제한이란 제약 때문으로 한개 실에 복합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거실은 평면에서 3개 주요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배치하여 거실의 기능인 가족중심 개념을 실의 명칭으로 표현하고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면에서는 본질의 개념이 변화 또는 축소되고 있다.

4) 기거양식은 일본 다다미의 좌식이 기본이 되고 서구식의 입식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5) 구조방법은 재래의 일본식 목조를 사용하고, 방한대응이 제시되지 못함은 온돌방식이 아닌 일본식 주거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

응모작은 총 78개 안이 제출되고, 이 중에서 6개 작품만이 당선작과 가작으로 선정된다³⁰⁾.

1등 도안은 설계개요에서 64.98 m² 규모임을 설명한다. 평면형식은 3개실(거실겸손님방: 居間兼客間, 차노마, 아동실)로 구성하였다. 거실겸손님방이 평면의 중심에 배치되지만 가족중심실로서의 거실이 아닌 침실과 손님접대의 복합기능을 갖는다. 차노마가 부엌과 연결되는 위치에서 가족실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면은 두 집이 한조를 이루는 집합배치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거양식은 일본식 다다미의 좌식을 기본으로 차노마를 온돌로 하는 조선식 좌식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조는 목조의 단층구조이며, 방한은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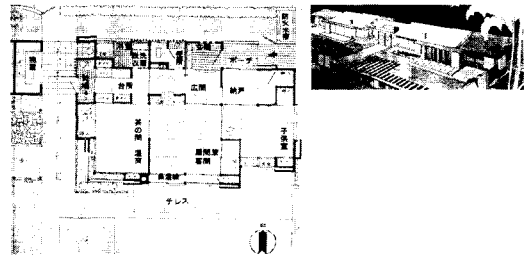


그림 12. 1등 평면도 ·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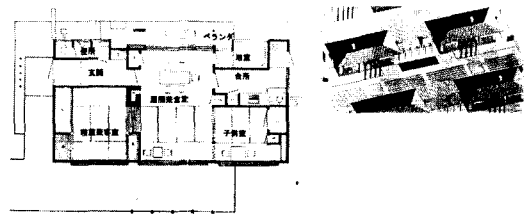


그림 13. 2등 평면도 ·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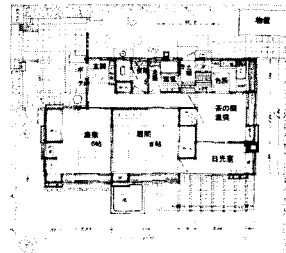


그림 14. 3등 평면도

노마가 온돌로만 대응하고 있다.

2등 도안의 평면형식은 1등안과 동일한 3개실(거실겸식당, 침실겸손님방: 寢室兼客室, 아동실) 구성을 하고 있다. 거실겸식당이 가족실로 평면중심에 배치되는 명확한 가족중심생활을 제시한다. 설계개요에 의하면 64.94 m²의 주거규모를 갖는 평면은 이웃과 동일한 주거배치를 하고 있다. 기거양식에서는 일본식 다다미의 좌식과 부분적으로 서구식 입식을 혼용하였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조는 1등안과 동일하나, 방한대책의 온돌 설치³¹⁾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밝

30) 當選圖案批評座談會速記, 『朝鮮と建築』 21집 10호(1942. 10), p.23. 당선자는 1등: 岡田進(總督府會計課) 2등: 上野勇(市廳營繕課), 3등: 川崎安次(鉄道局改良課)로 모두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31) 入選圖案, 『朝鮮と建築』 21집 10호(1942.10), 페이지 표기 없음. 2석안은 설명서에 온돌을 배제한 이유를 「①환기, 통풍, 육광, 자연채열 등의 모든 요소와 양립하지 않는다. ②봄, 여름, 가을의 사용효과가 없다. ③온돌생활에서 파생하는 역사적 민족성의 비판에서, ④온돌은 수혈주거적이다」로 설명하고 있다.

하고 있다.

3등 도안은 64.56 m² 규모로 설계개요에 명시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1, 2등 도안과 같은 3개실(거실, 자시킴, 차노마)구성과 일본주거의 중복도형평면이다. 손님접대실인 자시킴와는 별도로 3개실가운데에 거실을 배치하여 가족중심의 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시킴을 제외한 거실과 차노마는 가족실과 침실의 복합 기능을 갖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기거양식은 좌식으로 조선식 온돌과 일본식 다다미를 겸하고 있다. 구조는 1, 2등 도안들과 동일하며, 설명서에는 방한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도면에서 차노마를 온돌로 하여 방한 대응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주택 당선도안의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당선작 모두는 일본식 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 2) 기거양식은 선행된 현상모집 당선도안의 결과와 동일한 조선식과 일본식의 좌식과 부분적인 서구식 입식이 혼합되었다.
- 3) 주요 3개실의 방위는 남쪽으로 배치되어, 소(小)주택현상모집에서 보여준 평면배치와 동일하고, 또한 규모도 일치한다. 이로써 국민주택의 기본형은 소(小)주택으로부터 시작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 주택에서와 같이 실의 명칭은 그대로이나 복합적인 사용으로 실 기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4) 1등과 2등 도안에서는 1개 주거를 계획하여 이를 동일하게 통일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각각 독립하는 주거이면서도 상호 동일한 주거성격을 부여하는 집합적인 설계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집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시(戰時)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 단합과 조직화를 위해, 일정한 규격의 동일주거를 표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 조선건축회가 주최한 4개 현상모집에서 주택의 근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근대화는 생활 및 주거개선이 가장 주된 목적이자 목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현상모집에서 제시된 개선은 서구식 생활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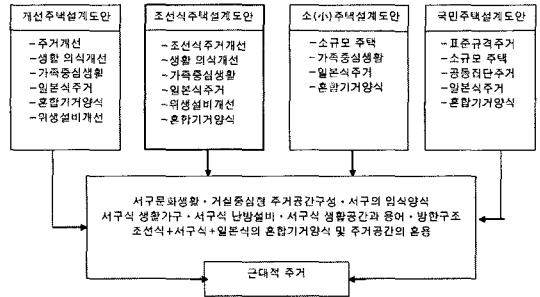


그림 15. 주택설계현상모집도안의 근대적 주거내용

아들이는 생활개조이다. 가족중심생활로의 전환, 그로인한 거실(居間)과 거실중심형 평면의 등장, 서구 생활에서 나타나는 공간용어, 서구문화의 일면인 서구식 가구와 설비사용 등은 생활개선을 서구식으로 적극 유도하는 방법이며, 당시의 시대사조인 근대적 논리에 입각한 도시생활형식을 지지하는 주거개선이 었다. 즉, 주거개선=서구식 생활개선=근대적 주거로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에 의해 제시되는 근대적 개선주택의 방법과 내용이 조선식 주택현상모집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단지 차이점은 일본식 주거가 아닌, 조선식 주거를 기본으로 한 부분적인 서구화 도입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생활과 이를 획일적인 표준으로 제시하는 현상모집에서도 주거개선의 의미는 축소되지만 그 근본은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생활의 기거양식은 모든 현상모집이 조선식과 일본식으로 나누어지는 좌식과 서구의 입식을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주거 또는 일본주거에 서구식 생활개선을 첨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로써 [조선+일본+서구]의 3개 양식이 평면에 혼용되는 주거로 나타난다. 특히 조선식 주거 현상모집에서 보여지는 일본식 평면배치는 조선인의 주거생활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선식 주거개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의 일본주거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주거에 적용된 구조는 방한이라는 설비와도 연관을 갖으나 제시되는 벽돌 조적조와 조선식 목조 또는 일본식 목조구조와 온돌, 서구식 난방설비 등은 주택개선이라는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대응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온돌은 조선식주거만을 제외한

일본식 주거에서 극히 일부분에 제시되고, 벽돌 조적조와 서구식 설비는 서구문화생활과 근대적 논리로 선택된 장치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현상모집의 당선도안은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식 주거를 위주로 근대적 주거개선을 제시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건축회가 한국인보다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주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생활 및 주거개선, 즉 근대적 주거의 움직임은 일본인들로 주축이 된 조선건축회를 통해서 고찰하는 것은 한국인들에 의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당시 조선보다 먼저 서구문화를 흡수하여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라는 근대사상을 직접 흡수하는 것이 아닌, 조선건축회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식으로 전환되고 변형된 근대주거를 접하게 되지만, 근대라는 시대에 따른 변화에 동승하는 주택개선과 이를 통한 생활개선을 사회에 알리고 소개하려는 활동 주체로서의 조선건축회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현상모집의 당선도안들은 실현성에 목적을 두었으나 결국 서구지향적인 사상, 이것이 곧 근대적 논리로 선택되고 지지되어 이에 입각한 주거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건축회 자신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개선안으로 해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된 최초의 주택설계안모집이라는 점과 이를 통한 근대적 주택의 전개

는 조선건축회와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근대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조선건축회에 의한 근대적 주택개선이 당시 실제로 건축된 한국인 주택에 어떻게 반영되어 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제1집 1호-제23집 11,12호.
2. 藤森照信(1990), 昭和住宅物語, 新建築社.
3. 朝鮮を知る事典(1986), 平凡社.
4. 平井聖(1989), 日本人の住まい, 市ヶ谷出版社.
5. 生活研究同人會(1982), 近代日本の生活研究, 光生館.
6. 中村圭介(2000), 文明開化と明治の住まい, 理工學社.
7. 김정아(1992),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박선희(1999), 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 인식, 한국주거학회지 10권 4호, p.53-62.
9.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평면계획의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7호, p.95-106.
10. 김명선·심우갑(2001), 1922년 조선건축회 주최 개선주택 현상모집에서 일본인 주택의 방한문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2호, p.87-95.
11. 川端貢(1988), 1922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의 건축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울외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1호, p.231-234.
12. 金珠也(1999), 日本強占期の建築團體朝鮮建築建築會の機關誌『朝鮮と建築』と住宅改良運動に關する研究, 京都工芸纖維大學博士論文.
13. 鈴木成文(1988), 住文化の持續と變容, 住宅総合研究財團研究年報, No.15, p.29-48.